



스위스 노천 카페/바 10 선.

초록초록한 초여름 향기가 솔솔 불어오는 노천 카페들
 옛 산업지대에 지어진 비어가든과 기관차 차고지에 들어선 카페까지
 수영장과 강가, 공원에 자리한 노천 바와 카페
 언덕 위와 호반에 자리해 기막힌 풍경 선사하는 명당 카페도
 커피, 와인, 칵테일, 꼬냑, 위스키는 물론 홈메이드 아이스크림까지

초여름이면 스위스 사람들은 무조건 밖에서 만난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앞 마당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여름을 맞이한다. 진한 커피 한 잔과 크로아상으로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연인부터 우아한 샴페인 한 잔들 두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노부부까지, 큼직한 아이스크림 한 덩이에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부터 자전거를 타다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나홀로 바이커까지, 모두에게 ‘쉼’을 선사하는 스위스의 노천 카페를 소개한다.

1. 취리히(Zürich)의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2012년 여름, 과거 산업지대였던 취리히 서부에 문화 공간들이 개발되던 과정에서 프라임 타워(Prime Tower) 공사장 발치에 임시 프로젝트로 시작된 비어 가든으로, 이제는 습, 아트, 가든 커뮤니티, 다양한 이벤트, 완벽한 주방이 갖춰진 취리히 시민들의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여름이면 하루 종일 밤중까지 가든이 오픈되어 로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래된 컨테이너가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테라스는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은 물론, 철도가 뻗어나가는 드라마틱한 취리히 서부의 전형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낮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알프스까지 눈에 들어온다. 여름에는 그릴에 구운 소시지나 가재 샐러드를 향기 좋은 맥주에 곁들여 즐길 수 있다.

2. 생갈렌(St. Gallen)의 로칼(Lokal)

로칼(Lokal)에서는 로컬 퀴진을 선보이는데, 심플한 메뉴부터 섬세한 메뉴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로칼은 아침 식전주 한 잔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와인 셀렉션이 훌륭한데, 꽤 많은 종류의 와인을 1dl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생갈렌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로, 옛 기관차 차고를 개조한 공간이다. 최근 기관차를 회전시키기 위해 약간 높게 설계된 턴테이블 회전 구조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야외 좌석에서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며 문화의 향기를 즐길 수 있다. 콘서트와 생갈렌 극장에서 선보이는 드라마, 생갈렌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 키녹(Kinok) 레퍼토리 시네마, 로칼 레스토랑이 이 곳에서 함께 모여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진 멋진 시간을 선사한다.

3. 루체른(Luzern)의 우프셰티(Ufschoetti) 공원

우프셰티 공원에서는 진짜 로컬들을 만날 수 있다. 무료로 수영을 할 수 있는 호반의 공원이라 로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널찍한 공간도 로컬들을 끌어 모으는 이유 중 하나다. 배드민턴을 치거나 잔디 위에서 원반던지기 몰두하는 로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베큐도 즐길 수 있어 연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인기다. 이 곳에는 비치 바가 있는데, DJ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시원한 맥주나 칵테일을 즐길 수 있어 항상 붐빈다. 루체른 역 근처에 있어 더욱 편리하다.

4. 베른(Bern)의 트리브호우츠 바(Trybhous Bar)

베른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초록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초록의 나무와 아레(Aare) 강에 둘러싸여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바로,



시원한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간식, 할루미 치즈 버거 등의 식사를 판매해 수영을 하다가 허기를 달래기도 좋다. 오는 6월 15일에는 크래프트 비어 페스티벌도 열린다.

5. 취리히(Zürich)의 소렐 호텔 리기블릭(Sorell Hotel Rigiblick)

취리히의 지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도시와 호수의 풍경을 바라보며, 향 좋은 커피 한 잔이나,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즐기기 좋다. 여름에는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으로도 인기가. 음료 외에도 로컬 및 시즌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테라스는 커다란 파라솔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스타일리쉬해 연인들에게 선택 디너로도 인기가.

6. 취리히(Zürich)의 소렐 호텔 취리히베르그(Sorell Hotel Zürichberg)

화창한 날이면 로컬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언제나 인기가. 아침 식사도, 런치도, 디너도 로컬들로 붐비고, 오후에는 노천 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와인 한 잔을 음미하거나,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이 눈에 띈다. 늦은 저녁에는 꼬냑이나 위스키 한 잔을 두고 야경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출출한 오후에 스위스 와인이나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와 즐기기에 좋다.

7. 루체른(Luzern)의 인젤리(Inseli) 공원

인젤리(Inseli)는 루체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 이 작은 공원은 루체른 기차역 뒤에 있는 호수에 접해 있는데, 그늘도 잘 지고, 경치도 좋아 여름이면 현지인들이 모여 햇살맛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특히 부베프(Buvette)라는 스낵바가 4월부터 9월까지 오픈하는데, 저렴한 음료와 편안한 음악을 선보여 인기가. 데크 체어에 앉거나 풀밭에 앉거나, 테이블에 앉아도 루체른의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피크닉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일요일이면 낮 4시부터 호숫가 바베큐가 열린다. 위치는 루체른의 베르프트슈테그(Werftsteg)를 찾으면 된다.

8.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ein)의 줌 슈타이네넨 트라우벤(Zum Steinenen Trauben) 카페

취리히 근교의 어여쁜 라인강변 마을, 슈타인 암 라인의 마을 광장, 라트하우스플라츠(Rathausplatz) 한 복판에 앉아 향 좋은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를 맛볼 수 있다. 바로 베이커리 카페, 슈타이네넨 트라우벤이다. 홈메이드 파이, 페이스트리, 이탈리아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곳이라 로컬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다채로운 샐러드와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다.

9. 바덴(Baden)의 트리브게 프리쉬루프바(Triebguet Frischluftbar)

취리히 근교의 도시 바덴에는 취리히부터 이어지는 리마트(Limmat) 강변의 아름다운 노천 바가 있다. 바로 트리브게 프리쉬루프바다. 바덴 구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산책로와 자전거로가 접해 있어 친구들과 함께 걸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맥주 한 잔 하려고 들르는 로컬들로 북적이다.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데, 맥주나 칵테일 한 잔과 함께 직접 그릴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메뉴도 인기가. 여름이면 소르베 아이스크림을 모두 하나씩 시켜 놓고 있다. 주말에는 밴드 공연도 열린다.

10. 아스코나(Ascona)의 호반길

스위스 남부의 이탈리아어권, 티치노(Ticino) 지역의 로맨틱한 마을, 아스코나의 호반길에는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카페가 줄지어 있다. 마조레(Maggiore) 호수와 브리사고(Brissago) 섬, 호수 건너의 산 풍경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기 좋다. 그 중 제라운지(See Lounge)는 아스코나의 구시가지와 호반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바로, 오후에는 커피와

Switzerland Tourism.



간식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클래식한 칵테일과 와인, 핑거 푸드를 DJ 음악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로맨틱한 장소로 변모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